

이력서

인적사항



정우민 Jeong Woomin

Web Publisher

1997.03.31 (만 24세)

T 010-4049-0334

E hikpur@naver.com

W woom31.github.io/portfolio2021/

학력사항

2018. 03 ~ 2022. 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전공심화과정	졸업
2016. 03 ~ 2018. 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졸업
2013. 03 ~ 2016. 02	가온고등학교	졸업

수상경력

2017. 06	2017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디지털미디어부문	입선
2017. 11	2017 계원예술대학교 조형제	우수작
2021. 08	2021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기획부문	특별상
2021. 11	2021 계원예술대학교 조형제	최우수작

보유기술

HTML & CSS

HTML과 CSS를 통해 사이트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고, 태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PC와 모바일, 반응형 페이지도 구현 가능합니다.

Javascript & jQuery

Javascript와 jQuery를 이용해 간단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오픈소스 인터랙션을 빠르게 검색하고 가져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웹 개발을 위한 이미지 편집 등의 포토샵 사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코딩하는 퍼블리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진 후에는 플래시로 창작활동을 했으며, 액션스크립트를 통해 처음 코딩을 접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여 제가 생각한 화면을 만들고,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래시를 이용한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알아 보기도 하였고 진로를 정하려 했으나, 점차 줄어드는 플래시의 입지에 저의 흥미는 HTML과 CSS, JavaScript를 이용한 웹 디자인과 퍼블리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싱을 배우면서 플래시를 할 때처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디자인을 구현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태그와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 JavaScript를 이용해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즐거움 등 저에게 있어 퍼블리싱은 즐거운 일이 되었고, 퍼블리셔가 꿈이 되었습니다.

세심하고 성실한 퍼블리셔

주위에서는 제게 "세심하고 성실하다"라고 자주 칭찬해 줍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책임감을 기본으로 지니고 일을 진행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드를 작성하며 오류를 쉽게 찾아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 역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에서 오는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업무속도가 늦는 편입니다. 때문에 저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시간을 조절하고, 미루지 않고 집중하여 맡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퍼블리셔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주로 저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면 제 일처럼 정보를 찾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공부가 되었기에 언제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더 나아가 교내 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원들과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웹 구현에 대해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저는 검색을 많이 하고, 'codepen'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공유되는 코드를 보고 응용하며 저도 한 걸음 나아가는 퍼블리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실력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실무에서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퍼블리셔

저는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현 상태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웹에 대한 관심은 퍼블리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프론트 엔드 개발에도 관심이 있어 순수 JavaScript를 사용해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Vue.js와 React.j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과 가능성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더 나은 퍼블리싱을 하고, 더 좋은 서비스와 더욱 편리하고 신선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며, 반드시 지킬 약속입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의 퍼블리셔 정우민입니다.